

☐ 홈 > 뉴스 > 해운 > 외항

BoxJoin 벤처기업 인증

[0호] 2009년 02월 09일 (월) 18:02:00

곽용신



컨테이너 전문 매니지먼트 회사인 BoxJoin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다.

BoxJoin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평가를 받아 2월 3일자로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.

슬라이딩 오픈 탑 컨테이너의 판매와 중고 컨테이너 매매 등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BoxJoin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슬라이딩 오픈 탑 컨테이너에 대한 기술평가를 의뢰해 기술력이 높다는 공식적인 평가를 받게 됐다.

BoxJoin 전병진 상무는 "벤처기업하면 대분 IT나 신기술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번에 BoxJoin은 슬라이딩 오픈 탑 컨테이너에 대해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다. 슬라이딩 오픈 탑 컨테이너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다는 반증이라 의미가 있다"고 설명했다.

BoxJoin은 앞으로 기술보증기금에서 확보한 자금으로 최근 새로 개발에 성공한 슬라이딩 오픈 탑 컨테이너 시제품을 생산해 국내 선사들을 상대로 활발한 마케팅을 전개하고 컨테이너 연구센터도 설립해 탱크 컨테이너, 활어 컨테이너 등 특수 컨테이너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.

BoxJoin은 또 기존에 철도 화차로 수송되던 곡물이나 무연탄을 적재할 수 있는 컨테이너도 개발하고 있다.

BoxJoin 전병진 상무는 "철도 화차로 수송되던 곡물, 무연탄 등은 하역에 큰 불편함이 있었다.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철송용 곡물, 무연탄 컨테이너는 하역비와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곡물, 무연탄 철송 부문에 대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"고 지적했다.



▲ BoxJoin 전병진 상무

© 한국해운신문(<http://www.maritimepress.co.kr>)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| 저작권문의

인쇄하기 창닫기